

# 김도영 “믿음 생겨...새로 태어날 것”



“2024년의 김도영이 아닌 2026년 새로운 김도영을 만들겠습니다.”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또 한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발전을 다짐했다.

김도영은 지난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삼성라이온즈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5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 1도루를 기록하며 KIA의 7-6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은 시즌 17·18호 홈런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홈런 부문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특히 두 개의 홈런은 팀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타구였다.

3-3 동점이었던 3회말에는 상대 양창섭의 6구째 136km 슬라이더를 건어 올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6-6으로 맞선 8회말에는 상대 배찬승의 5구째 152km 직구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결승 솔로 아치를 그렸다.

이로써 KIA는 삼성과의 3연전을 워닝시리즈로 마감할 수 있었다.

김도영은 결승 홈런에 대해 “우선 목표가 출루였다. 상대 투수가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직구에 늦으면 아예 답이 없겠다 생각을 했다”며 “최대한 타이밍을 빠르게 잡고 반응했다. 오늘 타격감이나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과감하게 나갔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3회말 팀이 다시 리드를 잡게 한 홈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도영은 “지금까지 상대해 본 양창섭 선수 공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최근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기에 첫 타석에 집중했다”면서 “투심·슬라이더·커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타석에 확실히 정립하고 두 번째 타석에 임한 게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김도영은 홈런 경쟁 상대인 오스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홈런왕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닌 데 오스틴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잠실 야구장을 쓰면서도 높은 타율과 홈런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정말 너무 좋은 용병 선수인 것 같다”고 평했다.

올 시즌 김도영은 60경기에서 219타수 61안타 18홈런 49타점 3도루 타율 0.27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출한 대기록을 세우며 리그 MVP를 받았던 때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하지만 김도영은 삼성과의 경기기를 통해 다시 감을 찾아가고 있다.

김도영은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홈런이 나오고 짧은 안타를 신경 썼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오늘로서 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과는 다른 새로운 ‘김도영’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도영은 “올 시즌 초반에만 좋았을 때는 2024년 당시 폼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비슷하게 안가더라”면서 “그래서 2024년의 좋았던 느낌은 보내주고 새로운 나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 미래에 봤을 때 2026년의 김도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폼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삼성전서 5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 1도루 맹활약

### 홈런 18개 단독 선두...“필요할 땐 주저 없이 도루”

이날 6회 3점차 상황에서 김도영은 도루에 성공했다. 올 시즌 3번째 도루 성공.

지난 시즌 세 번의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그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과감한 움직임으로 2루 베이스를 छु쳤다.

이에 김도영은 “(도루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 않았다. 팀이 필요할 때 주저 없이 도루할 거다”며 “상대 타자들이 너무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어서 3점 치르는 절대 안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주저 없이 시도했다”고 전했다.

9일 경기 전 기준 김도영은 18개의 홈런으로 이 부문 단독 1위에 올라있다. 오스틴(LG)은 17개로

나오고 짧은 안타를 신경 썼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오늘로서 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과는 다른 새로운 ‘김도영’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도영은 “올 시즌 초반에만 좋았을 때는 2024년 당시 폼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비슷하게 안가더라”면서 “그래서 2024년의 좋았던 느낌은 보내주고 새로운 나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 미래에 봤을 때 2026년의 김도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폼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FC, ‘젊은피’ 수비수 배진우 품었다

서울이랜드 출신 풀백 합류...공수 겸비 멀티 자원 기대  
“K리그1 첫 도전... 영입한 이유 경기장에서 증명할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젊은피를 수혈하며 수비진 강화에 나섰다.

광주는 9일 서울이랜드FC 출신 풀백 배진우(24·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광주는 측면 수비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술 운용의 폭도 넓힐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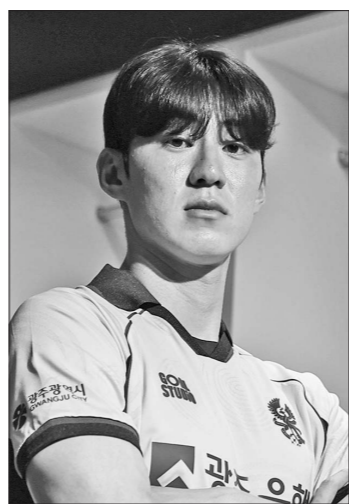
풍생고와 제주국제대를 졸업한 배진우는 2023년 K3리그 파주시민축구단에서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그는 2025년 K리그2 서울이랜드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진출했고, 리그와 코리아컵을 포함해 총 27경기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다.

배진우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공격 기법 능력이다. 공

격 상황에서는 직선적인 돌파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측면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유형의 선수로 평가받는다.

수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184cm의 준수한 신장을 바탕으로 측면 경합과 대인 방어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중볼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 주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지만 좌우 측면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광주는 이번 영입을 통해 측면 수비층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부족했던 높이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배진우는 우수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대인 경합 능력이 강점인 풀백이다.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팀에 부족했던 높이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며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춘 만큼 팀 밸런스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리그1 무대에 처음 도전하는 배진우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배진우는 “광주에 입단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K리그1은 처음이지만 구단이 나와 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 호남대 축구학과 ‘호남DFS’ JUFA CUP 챔피언

6경기 18득점 2실점 압도적 우승...K7·KUSF 무대 도전

호남대학교 축구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호남DFS가 ‘제1회 JUFA CUP’ 정상에 오르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호남DFS는 전라·광주권 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6경기 무패 행진을 펼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예선전을 치른 뒤 지난 6일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 팀을 가렸다. 참가 팀들은 A조와 B조로 나뉘어 각각 5개 팀씩 조별리그를 진행했다.

B조에 속한 호남DFS는 예선 첫 경기에서 전남대학교 IMPACT와 1-1로 비기며 출발했다.

이후 목포대학교 ASSIST를 2-0으로 꺾고 흐름을 잡았고, 전북대학교 ZEUS를 상대로 5-1 대승을 거뒀다.

광주교육대학교 GNUE FC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7-0 완승을 거두며 3승 1무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도 기세는 이어졌다. 호남DFS는 4강전에서 A조 2위 원광대학교 KAISER를 1-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이어 결승전에서는 A조 1위 원광대학교 협풍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

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앞세워 2-0 승리를 거두고 대회 정상에 섰다.

호남DFS는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8득점 2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다져온 조직적인 전술과 높은 결정력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돋보였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안정적인 수비 균형을 유지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했고, 빠른 공수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전술적 틀 안에서 펼쳐진 자유로운 연계 플레이 역시 다수의 득점 기회로 이어졌다.

천성용 호남대 축구학과장은 “선수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주 2회 꾸준히 훈련하며 준비한 전술과 팀워크를 경기장에서 훌륭하게 보여준 결과”라면서 “초대 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DFS는 이번 우승을 발판 삼아 대한축구협회(KFA) 주관 K7리그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주최 클럽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국군체육부대 테니스팀, 광주서 재능기부 무료 강습

권순우 등 정예 선수단 10명 참여  
오늘까지 선수·동호인 100명 지도

광주시체육회가 국군체육부대 테니스팀과 함께 지역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 재능기부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국군체육부대 테니스팀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지역 선수와 동호인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습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직접 지도에 나서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광주 지역 엘리트 선수 35명과 테니스 동호인 7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스포츠를 매개로 군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습은 일정별로 대상자를 나눠 진행된다. 첫날인 8일에는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소속 전문선수 15명을 대상으로 훈련이 이뤄졌으며, 9일에는 동



광주시체육회가 국군체육부대 테니스팀과 함께 지역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 재능기부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호인 48명과 전문선수 20명이 참가했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동호인 2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강사로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권순우를 비롯해 박승민, 박용준, 신우빈, 이준현, 장윤석, 정윤성, 추석현, 현준하, 홍성찬 등 국내 정상급 선수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 국가대표 권순우는 지난 4월 열린 광주 오픈 웰린저 남자 단식에서 국내 선수 최초 우승을

차지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우승으로 개인 통산 15번째 국제대회 우승과 5번째 ATP 챌린저 우승을 달성하며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선수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참가자들은 기본기 훈련부터 실전 경기 운영, 스트로크와 서브 기술, 체력 훈련 노하우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경험과 기술을 직접 전수받으며 수준 높은 강습을 경험하게 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호남대학교 축구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호남DFS가 ‘제1회 JUFA CUP’ 정상에 오르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사진제공=호남대